

# 1

## 인문계열 논술고사 (서울, 오전) (국어/도덕/사회)

[홍익대학교 문항정보]

###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국어, 독서, 언어와 매체 도덕과: 생활과 윤리 사회과: 통합사회, 정치와 법
	핵심개념 및 용어	집중, 분산, 리바이어던, 표준어와 방언, 인터랙티브 예술, 블록체인, 탈중앙화, 다원주의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 (가)~(라)는 집중과 분산이 관계 맺는 양상들을 보여준다. 각 제시문에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분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가)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한 다. 이러한 성향을 강압적 힘으로 제약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무질서의 상태를 피하는 방법은 공공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맺어 자신의 힘을 한 사람의 통치자 또는 하나의 합의체인 국가에 양도한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군중을 국가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sup>1)</sup>의 탄생이다.

모든 개인으로부터 이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리바이어던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공포를 통해 각 개인의 의지들을 통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많은 권력을 갖는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평화를 유지하고, 해외의 적들에 대해서는 공동 방어를 한다.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면, 이러한 권력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통치자는 교육을 통해 국민이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잘못된 사상에 선동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 리바이어던(Leviathan): 『구약 성서』에 나오는 수중 괴물의 이름으로 홉스(T. Hobbes, 1588~1679)가 국가를 이것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 제시문 (나)

1988년 문교부가 고시한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 말”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문화적 위신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표준어의 매력과 구심력을 한층 키웠다. 그러나 표준어가 휘두르는 획일화의 폭력에 맞서는 저항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방 출신의 서울 거주자들 가운데 자신의 방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주류 언어에 동화하는 것을 제 정체성의 굴욕적 포기로 여기는 방어 본능 때문일 것이다. 문학의 세계에서도 표준어에 밀려 잊혀 가는 방언들을 기록하고 되살려 놓으려는 작가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언어가 본디 소통의 도구이므로 정보통신 분야의 끊임없는 표준화 시도가 당연하듯, 표준어의 제정 자체는 불가피하다. 수많은 방언들의 대등한 경쟁은 그 원심력으로 한 언어를 이완시켜 마침내 소통 불능 상태로 분해해 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표준어가 한 언어 안에서 행사하는 패권은 그 언어의 표현 가능성을 제약해 결국에는 단조롭고 가난한 국어만을 남게 할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지방 언어(방언)를 존중하고 그 사멸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여기에는 방언을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다원주의적 시각으로의 전환이 반영되어 있다. 표준어와 방언은 제 나름의 사용 영역과 기능이 있기에, 공존함으로써 한 나라의 언어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시문 (다)

인터랙티브 예술 즉, 쌍방향 예술은 1990년대 초반에 컴퓨터 기반의 상호작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예술 세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기초한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현대 예술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인터랙티브 예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관람객의 참여가 작품의 일부가 된다는 점이다. 관람객은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니라, 전시된 특정 물체를 만지거나, 조작하거나, 그 앞에서 행위를 함으로써 작품의 의미와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 작품은 권력을 지닌 작가의 단일한 의도에 종속되기보다는 다양한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예술에서는 의미의 생산과 수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이다. 작가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발견하고, 관람객은 작품 완성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작가와 나누어 갖게 된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은 더 많은 관람객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형식의 창출을 돕는다. 이는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제시문 (라)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화는 ‘중간 관리자 없이 모두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행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자. 은행은 모든 사람의 거래 기록을 혼자서 보관하고 관리하며, 거래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신뢰는 은행이라는 거대한 중앙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sup>2)</sup>들이 함께 정보를 나누어 보관하고 서로의 기록을 검증한다. 마치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거래 장부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장부에는 모든 사람의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어떤 친구가 자기 장부의 내용을 몰래 고치려고 해도, 다른 친구들이 가진 수많은 장부의 내용과 달라서 금방 탄로가 난다. 또한 중앙 서버가 해킹되거나 특정 관리자의 실수로 데이터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기록들이 이를 보완하여 전체 시스템은 완전하게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은 신뢰의 초점을 중앙기관에서 개인과 집단의 합의로 이동시킨다. 과거에는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이 거래를 보장해 주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거래의 진위가 판단되고 신뢰가 형성된다. 즉, 특정한 중앙기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없이도 기술적인 합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질서이다.

2) 노드(node):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

### 3. 출제 의도

이 논술 문제는 제시문 (가)부터 (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집중’과 ‘분산’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학생은 각 제시문이 보여주는 맥락 속에서 집중과 분산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각각이 어떤 결과와 가치를 지니는지를 논리적으로 비교하고 종합해야 한다.

먼저 제시문 (가)는 분산된 개인의 힘이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고,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국가만이 평화와 질서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분산은 부정적이고 위험한 상태로 인식되며, 이를 극복하는 수단이 집중이다.

제시문 (나)는 언어의 집중(표준어)과 분산(방언)의 관계를 통해 분산의 이중적 의미를 조명한다. 표준어는 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필연적 수단이지만, 방언의 억압은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분산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적 풍요와 다양성의 조건으로서 분산을 존중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제시문 (다)는 예술의 생산 주체가 작가에서 관람자에게 분산되는 인터랙티브 예술을 통해, 분산을 창의성과 민주화의 실현 방식으로 긍정한다. 예술의 권위가 탈중앙화되면서 새로운 해석과 공동 창작이 가능해지고, 이는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제시문 (라)는 블록체인을 통해 오히려 중앙 집중 시스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분산을 제시한다. 신뢰와 검증의 권한이 참여자들에게 분산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가)와는 대조적으로 분산을 긍정적 질서의 기반으로 본다.

이처럼 제시문들은 모두 ‘분산’을 다루지만, 그 인식과 평가 방식은 서로 다르다. (가)는 분산을 위험한 상태로 보고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다)와 (라)는 분산을 창의성·참여·자율성·신뢰 구축의 기반으로 긍정한다. (나)는 두 관점을 절충하며, 분산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결국 이 문제는 학생이 각 제시문이 보여주는 분산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산이

라는 개념이 사회적·문화적·기술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합적 사고력, 종합적 분석 능력, 논리적 표현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

각 제시문들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무난히 독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제시문 (가)는 생활과 윤리의 사회계약론 관련 내용, (나)는 언어와 매체 중 표준어와 방언, (라)는 통합사회 중 자산 관리 단원과 연계되어 고교 교육과정 수준 범위 내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 1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 1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3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제시문 (나)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4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가)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5	[10통사05-04]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 주기별 금융 생활을 설계한다.	제시문 (라)	

#####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자료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18	177-178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8	174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범석 외	지학사	2018	16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214-215	제시문 (나)	○

2) 교과서 외 자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흙스 리바이어던/ 시민론	현택수	빠리카페	2017	46-172	제시문 (가)	○
말들의 풍경	고종석	개마고원	2012	23-27	제시문 (나)	○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	이상규, 조태린 외	태학사	2008	61-63	제시문 (나)	○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세계	이재현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	3-45	제시문 (다)	○
인터랙티브 아트: 관객과의 소통	이재현	테슬라북스	2025	3-50	제시문 (다)	○
멀티미디어	이재현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2013	4-20	제시문 (다)	○
블록체인혁명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을유문화사	2018	64-128	제시문 (라)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부터 (라)까지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집중’과 ‘분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며,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논술 문항은 단순히 제시문을 요약하거나 개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제시문이 ‘분산’이라는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지를 비교·분석하고, 그 차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사고력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제시문들이 제시하는 ‘집중과 분산’의 양상이 단순한 개념 대립을 넘어서 어떤 사회적·문화적·기술적 질서와 가치관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시문 (가)는 흙스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연 상태를 경쟁과 불신의 상태로 보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힘을 하나의 절대 권력으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여기서 분산은 질서의 부재를 의미하며, 개인의 힘이 흩어져 있는 상태는 곧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분산은 부정적인 상태로 인식되고, 집중은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된다. 이 관점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심 권력이 필요하다는 정치철학적 시각을 반영한다.

제시문 (나)는 언어라는 문화적 영역에서의 집중과 분산을 다룬다. 표준어는 전국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중심이지만, 동시에 방언이라는 지역적 표현을 억압하고 소외시킬 수 있는 문화적 폭력성을 지닌다.

분산된 언어 형태인 방언은 때로는 표현력과 정체성을 담지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된다. 제시문은 방언을 억제나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존중해야 할 문화적 다양성의 요소로 본다. 이는 분산에 대해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적 시각을 보여준다. 즉, 분산이 무조건적 해체나 불안정의 상징이 아니라 문화의 풍요로움과 자율성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시문 (다)는 예술 영역에서의 권한 분산을 다룬다. 인터랙티브 예술은 창작의 권한을 작가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의미 생산의 중심이 분산되며, 예술의 해석과 체험이 다원화된다. 기존에는 작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집중'의 구조였다면, 인터랙티브 예술은 관람자와 작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산'된 참여 구조를 형성한다. 이때 분산은 단순한 권한의 해체가 아니라, 창조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분산은 예술의 민주화를 이끄는 긍정적 요인으로 인식된다.

제시문 (라)는 기술의 영역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중앙집중형 구조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서는 신뢰와 정보가 중앙기관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검증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다. 이처럼 권한과 정보가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 분산은 여기서 새로운 신뢰의 원리이자 기술 기반의 사회적 질서 형성 방식으로 작동하며, 그 자체로 긍정적 가치가 부여된다.

이처럼 제시문들은 모두 '분산'을 중심으로 하되, 그것이 위치한 사회적·문화적·기술적 맥락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제시한다. 제시문 (가)는 분산을 위험 요소로 간주하여 그것을 통제하고 집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시문 (다)와 (라)는 분산을 권력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신뢰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바라본다. 제시문 (나)는 두 입장을 절충하며, 분산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가치를 옹호한다.

따라서 이 문항은 단순히 제시문 간의 관점을 나열하거나 찬반을 밝히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제시문이 제시하는 맥락 속에서 분산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정밀하게 비교하고, 그 차이를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사고의 깊이를 요구한다. 궁극적으로는 '분산'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질서와 가치관이 다르게 구성된다는 통찰에 도달하는 것이 이 논술 문제의 핵심이다.

6. 채점 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p>※ 문제 1은 사범대학,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6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30점을 배점한다.</p> <p>■ 기본 평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li> <li>2. 문제의 요구를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로 분량을 채우거나, 합당한 근거의 뒷받침 없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견해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li> <li>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에 포함된 구절을 따옴표 등의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li> <li>4. 문제가 답안을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쓸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답안은 서론과 결론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이 요구하는 사항 전부를 본문에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항의 요구사항 중 일부로 서론 또는 결론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li> </ol>	-

5.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인 “제시문 (가)~(라)에 나타나는 집중과 분산이 관계 맺는 양상을 각각 분석”하는 것에 총 60% (제시문 (가)~(라)를 분석하는 것에 각각 15%), 두 번째 요구사항인 “이를 종합하여 분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 20%를 배점한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 ① ‘집중과 분산이 관계 맺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소수와 분산되는 다수를 구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릴 수 있어야 한다.
- ② 집중과 분산이 관계 맺는 양상은 각 제시문에 사용된 핵심어를 활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핵심어를 찾아서 그대로 기술할 수도 있고, 핵심어를 토대로 추론하여 기술할 수도 있다.
- ③ 각 제시문은 다루고 있는 집중과 분산의 양상이 모두 다르고, 집중 중심에서 분산 중심으로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의 순서대로 각각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량은 각 제시문에 대해 150자 정도가 적당하다.
- ④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60점, 각 15점)  
※ 제시문에 나온 구절은 큰따옴표(“”)로 표시하였음.

	집중되는 곳 ↔ 분산되는 곳	집중과 분산의 관계
제시문 (가)	통치자(국가), 리바이어던 ↔ 군중(국민)	“무질서를 피하기 위해,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면, 권력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 분산을 막아야 하고 집중해야 한다. (※ 분산과 집중은 양립 불가능한 배타적인 관계)
제시문 (나)	표준어 ↔ 방언(들)	“방언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표준어의 폭력에 맞서는 방언의 저항” ⇒ 집중과 분산은 폭력과 저항 관계 (※ 갈등, 경쟁 관계) “소통을 위해 표준어의 제정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언어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들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 ⇒ 분산은 집중과 구별되는 기능을 갖는다. 집중과 분산이 “공존”해야 한다. (※ 집중이 우위에 있는 분산의 존중)
제시문 (다)	작가 ↔ 관람객(들)	“작품은 권력을 지닌 작가의 단일한 의도에 종속되기보다는,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작품 완성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작가와 관람객이 나누어 갖는다.”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 분산은 집중과 구별되는,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분산이 집중을 보완한다. (※ 집중이 우위에 있지 않고, 분산에 더 많은 의미 부여)
제시문 (라)	중앙기관, 은행 ↔ 노드(들), 네트워크 참여자들	“집중의 방식에서 벗어나, 집중의 방식이 없어도, 신뢰, 질서, 시스템이 유지된다.” ⇒ 분산이 집중보다 더 낫다. 분산이 집중을 대체할 수 있다. (※ 분산이 집중보다 우위)

60

3. 문제의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 ① 각 제시문에 나타나는 ‘분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여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결론으로 삼을 수 있다. 단,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그것을 토대로 기술해야 하므로,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기술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 각 제시문 사이에서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제시문 (가)는 분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이고, 상대적으로 제시문 (나)~(라)는 분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나타난다. 또한 과거(17세기)에는 분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20세기 이후 현대에는 분산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확장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답안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예시	평가
긍정적, 부정적 관점의 구별을 넘어서서 ‘무질서와 질서’, ‘저항과 대체’ ‘보존과 창출’ 등 차이를 보다 구체적, 입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상
긍정적, 부정적 관점 사이의 정도 차이와 함께 변화의 방향 또는 시대의 변화를 설명한 경우	중
긍정적, 부정적 관점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경우	하

- ③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20점)

분산에 대한 관점/가치 평가의 차이		
제시문 (가)	분산은 나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은 “무질서”를 유발하므로, 막아야 한다. (분산 억제 지향)</li> </ul>
제시문 (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은 패권에 대한 “저항”이다.</li> <li>• 분산은 “존중과 보존”의 대상이다.</li> <li>• 집중과 분산이 “공존”해야 한다. (“다원주의” 지향)</li> </ul>
제시문 (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을 통해 “변화”와 “완성”이 이루어진다.</li> <li>• 분산이 “새로움을 창출”한다.</li> <li>• 분산이 “민주화”를 촉진한다. (“민주화” 지향)</li> </ul>
제시문 (라)	분산은 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은 “새로운 질서”다.</li> <li>• 집중의 방식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다.</li> <li>• 집중의 방식보다 분산의 방식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탈중앙화” 지향)</li> </ul>

4.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이 문제의 경우는 첫 번째 요구사항을 본론으로, 두 번째 요구사항을 결론으로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서론이 없더라도 문제의 요구사항에 충실하게 답하였다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적절히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비문**이 많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총 배점 10점)

20

10

##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기도, 여러 곳에 분산되기도 한다. 제시문 (가)~(라)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집중과 분산이 관계 맺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가)는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면 권력이 분할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힘이 ‘리바이어던’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집중과 분산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이며 분산은 막아야 할 부정적인 상태이다. (나)는 표준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방언을 보존하는 노력도 강조한다. 표준어가 언어를 획일화하는 구심력은 집중에 해당하고, 방언들이 표준어에 저항하는 원심력은 분산에 해당한다. 여기서 집중과 분산은 같등하기도 하지만 공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가 주목한 인터랙티브 예술의 특징은 작품이 작가의 단일한 의도에만 종속되지 않고 여러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변화되고 완성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술적 경험은, 집중보다 분산을 더 부각시키고 분산이 집중과는 구별되는 가치를 지님을 드러낸다. (라)는 중앙기관의 관리 없이도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을 소개한다. 이 경우에 신뢰가 집중되어 있을 때보다 분산되어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은 집중을 대체하는 더 나은 선택이 된다.

집중을 강조했던 과거에 비해 현대는 분산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가)는 분산을 무질서로 보았지만 (라)는 집중으로 유지되는 기존의 질서가 분산으로 유지되는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기술의 변화를 제시했다. 또한 (나)는 집중에 대한 저항으로서, (다)는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집중을 보완할 수 있는 분산의 기능과 가치에 주목했다. 나아가 (다)의 ‘민주화’, (라)의 ‘탈중앙화’는 분산을 집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준다.

# 2

## 인문계열 논술고사 (서울, 오전) (국어/도덕/사회)

[홍익대학교 문항정보]

###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화법과 작문, 독서 도덕과: 생활과 윤리 사회과: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기술 낙관주의, 제도, 국가, 시민참여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자료

[문제 2] 제시문 (마)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 관점에 따라 제시문 (바)와 (사)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제시문 (아)의 쟁점에 관해 논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마)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멈출 수 없는 추세로 전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발명과 혁신이 판단의 결과를 불러온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 농업 기술 발달은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90퍼센트에 달하던 농민에게는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기술 낙관주의가 옳은 측면도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과학지식의 발달 과정을 혁명적으로 바꾼 점이 그러하다. 인류가 쌓아온 방대한 지식이 이제 우리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아가 수십억 인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쪽으로 쓰이게 하려면 과학기술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는 맹목적인 기술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광범위한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냐는 정치적·경제적 선택에 달려있다. 순전히 기술 공학적 의미에서 무엇이 합리적인지가 꼭 결정적인 요소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서로 다른 선택지는 서로 다른 집단에 이익을 가져다주므로 선택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다.

제시문 (바)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대에는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있다. 노갈레스는 원래 멕시코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는데, 1853년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노갈레스의 일부를 매입한 후, 1994년에 거대한 장벽을 세움으로써 한쪽은 멕시코 소노라주 노갈레스, 다른 한쪽은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로 나누어지게 된다. 국경선을 맞댄 쌍둥이 도시지만 두 도시의 운명은 판이하다. 미국 노갈레스 주민들은 멕시코 노갈레스 주민들보다 평균 세 배 이상의 돈을 벌고 있으며, 멕시코 주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 의료혜택, 복지 등의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제공 받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각 국가의 제도이다. 멕시코에서는 힘 있는 정치 세력과 독점 기업 간의 오래된 유착관계를 방치하여,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막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착취적 제도<sup>3)</sup>는 탈세, 횡령과 같은 부정부패를 성행하게 하며, 정당한 근로의 기회와 대가를 보장하지 않아 사람들 간 극심한 빈부 격차를 초래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 기업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등 합당한 인센티브(경제적 유인)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sup>4)</sup>를 취함으로써 기업이 정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혁신과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3) 착취적 제도: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는 제도

4) 포용적 제도: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체계가 공평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 제시문 (사)

시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감시와 비판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소규모의 인터넷 카페로 시작하여 회원 4만 4천여 명의 시민 단체로 급성장한 ‘미대축’(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단체의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회 운동가가 아니라 평범하게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이다. 이들은 환경부와의 면담, 집회와 토론회,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던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발의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학교 등에 공기 정화 시설 설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 제시문 (아)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한쪽 끝에서는 인공지능이 온갖 난제를 풀고 인류를 구원하는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 분석 프로그램은 금융 분석가가 40시간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처리하고 있고, 2045년쯤에 이르러서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컴퓨터가 스스로 자신을 개조해 지적 능력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존재가 불치병 치료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 인류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 주장한다.

반대쪽에서는 심각하게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 디스토피아<sup>5)</sup>의 가능성을 경고한다. 기계가 육체노동자를 대체했듯이 인공지능이 지식노동자를 대체할 것을 우려한다. 세계 경제 포럼은 인공지능과

로봇 과학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데 반하여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5)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이상향)의 반대 개념

### 3. 출제 의도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제시문 (마), (바), (사)를 통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배우는 “과학기술 낙관주의”와 “과학기술 비관주의”, <경제> 과목의 “정부의 역할 이해”, 그리고 <정치와 법> 과목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아)에 제시된 인공지능 사례를 분석, 평가,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중 학습하는 주요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로, 제시문 (마)~(아)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기반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동일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수준의 범위 내에서 발췌하여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2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마), (바), (사), (아)  제시문 (마), (바)

관련 성취기준			(사)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3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아)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4	[10통사05-02]에서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은 시장의 한계와 관련지어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역할, 기업이 정 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권,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다룬다.	제시문 (바)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5	[12경제01-03]에서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전통 경제, 계 획경제, 시장경제의 특성을 간단히 비교한 후,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의 자유와 경 쟁을 바탕으로 가격 기구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공 정한 경쟁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제시문 (마), (바)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6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 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제시문 (사)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7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사), (아)	

## 나) 자료 출처

### 1) 교과서 내 자료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정치와 법	이경호 외 6인	미래엔	2020	83	제시문 (사)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8인	비상교육	2020	120	제시문 (아)	○

### 2) 교과서 외 자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권력과 진보	대런 애쓰모글루, 사이먼 존슨 (김승진 옮김)	생각의 힘	2023년	1-735	제시문 (마)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최완규 옮김)	시공사	2012년	25-78	제시문 (바)	○
부국의 조건	KBS <부국의 조건> 제작팀	가나출판사	2016년	20-49	제시문 (바)	○

## 5. 문항 해설

제시문 (마)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광범위한 변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기술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체의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공동체의 선택이란 정치적·경제적 선택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술자나 소수 권력자들의 결정에만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은 특정 집단, 혹은 강자에게 유리한 편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맥락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사회·문화)에서는 기술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다루고 있어서 학생들은 답안에서 과학기술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마)의 내용은 과학기술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선택과 노력이 필요함을 학생들이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바)는 멕시코의 착취적 제도는 미국의 포용적 제도는 경제 성장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국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시문 (마)에서는 중세 시대 농업 기술 발달이 인구 90%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은 것과 같이, 국가의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는다면 빈부 격차 등으로 더 이상의 혁신과 변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바)가 올바른 국가의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면, 제시문 (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 사례처럼 과학기술 발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과학기술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제시문 (아)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중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쪽은 맞고 다른 쪽은 틀리다는 방향으로 답한다면 제시문 (바), (사), (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통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한 것이다. 학생들은 제시문 (바)의 “포용적 제도”와 제시문 (사)의 “시민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광범위한 변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끌어내야 한다.

## 6. 채점 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평가 기준</li> <li>※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li> <li>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li> </ul>	-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6. 학생들이 제시문 (마)의 내용을 사례 (바), (사)와 연관하여 분석하는 부분 50%,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아)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 40%를,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7. 채점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평가 기준	배점
과학기술 발전 방향 제안	제시문 (마)의 이해	- 새로운 과학기술이 광범위한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 - 과학기술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맹목적인 기술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공동체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0
	제시문 (바): 국가 제도적 방안	- 멕시코의 착취적 제도와 미국의 포용적 제도의 비교 - 국가 제도의 설계가 근로자의 처우 및 경제 성장의 차이를 만들었음을 이해 - 국가 제도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번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안임을 인식	20
	제시문 (사): 시민 참여적 방안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 시민사회가 권력의 남용을 감시, 견제하여 국가의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이해	20

50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제시문 (아)의 쟁점에 대한 방안 제시	과학기술 발전의 양면성	- 인공지능이 갖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서술 - 과학기술로 인한 번영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감점	15
	공동체적 선택의 필요성	- 이분법적 사고: 기술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주장만 하는 경우는 낮은 점수 부여 - 국가 제도적 방안과 시민 참여적 방안 모두가 과학기술 발전	25

50

		을 통한 번영에 필요한 과정임을 서술	
글 전체	논리적 완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10

##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제시문 (마)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광범위한 번영으로 이어지기 위해, 맹목적 기술 낙관주의에서 벗어나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향에 관한 정치적·경제적 선택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그 선택에 관해서 제시문 (바)와 (사)가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바)의 ‘노갈레스’ 예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제도의 선택이 중요하고, 특히 포용적 제도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멕시코에서는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성행하는 착취적 제도가 만들어진 데 반하여, 미국은 인센티브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를 채택한 결과 기업가 정신이 촉진되고 과학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다. 여기서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포용적 제도의 선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시문 (사)의 ‘미대축’ 예시처럼, 시민사회는 포용적 제도가 선택되고, 나아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줄어들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발달의 성과가 특정 기업과 집단에만 집중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민사회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제시문 (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불치병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유토피아적 입장과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디스토피아적 입장의 대립을 설명한다. 하지만 제시문 (마)의 관점에 따르면 맹목적 낙관주의와 극단적 비관주의 모두 타당하지 않다. 국가는 포용적 제도를 선택해서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모두에게 공유되도록 해야 하고, 시민사회는 국가가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3

## 인문계열 논술고사 (서울, 오후) (국어/사회)

[홍익대학교 문항정보]

###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사회과: 한국사,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기록, 데이터, 기록 변경, 가치, 혼민정음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 (가)는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 (다), (라)에 나타난 기록을 분석하시오. 단, 제시문의 정보만으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시오.(800±100자)

제시문 (가)

기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달력 한 귀퉁이에 적은 것도 기록이고 노트를 빼곡하게 채우는 것도 기록이라 부른다. 하지만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을,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정보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라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든 기록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이 그 생산·관리 및 이용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진본성(眞本性 authenticity)이다. 진본성은 어떤 기록이 위조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것임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 『태종실록』이 조선 실록청에서 편찬한 것이 맞는지, ‘저’ 『난중일기』가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가 진짜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로 무결성(無缺性 integrity)을 들 수 있다. 무결성은 기록이 훼손, 손실, 변조 등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만 기록이 생산된 후 그 물리적 요소가 변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종이 기록의 잉크가 흐려졌거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도 무결성이 손상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몇 면이 없어졌거나 없어진 면이 공증 서명 부분이라면, 무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해당한다.

한편 데이터와 같은 전자 기록의 무결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록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았는지로 판단한다.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변형은 불가피하다는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전자 기록은 그 기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은 완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과 형태의 요건이 동일하다면 디지털 정보를 구성하는 비트스트림(bit stream)\* 등의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기록의 무결성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가치 있는 기록의 구성 요소로 이용가능성(usability)도 있다. 이는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록을 가치 있게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그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 기록의 이용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술환경이 변화해도 이를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비트스트림(bit stream): 데이터의 단위인 비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수열. 이를 가져와 기억 장치의 매체에 저장하면 컴퓨터 파일이 만들어짐.

#### 제시문 (나)

“나라말쓰미 中 國 國 旗에 달아 文 明 字 號 와 로 서 르 스 ㅎ ㅎ ㅎ ㅎ 아 니 ㅎ ㅅ ㅅ ㅅ ㅅ”로 시작되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서문(御製序文)’은, 세종이 한글을 만든 동기와 목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어졌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 그런데 그 창제 원리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기록으로만 존재하였고 원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 이 책이 발견된 것은 놀랍게도 한글 창제 후 500여 년이 흐른 뒤인 1940년대에 와서의 일이다. 이 책은 1책 33장의 목판본으로 세종이 직접 쓴 ‘어제서문’과 ‘예의(例義)\* 4장, 집현전 학사들이 쓴 ‘해례(解例)\*\* 2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솔 최현배는 “진정한 원본의 출현을 고대함이 간절하더니, 천만뜻밖에 영남에서 이런 진본이 발견되었음은 실로 하늘이 이 글의 운을 돌보시고 복 주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 반갑도다. 훈민정음 원본의 나타남이여!”라고 감격하기도 하였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2008년 7월 간송미술관 소장 원간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추정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경북 상주시에서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보도 이후 원본 확인을 위해 소장자를 찾아간 전문가에 따르면, 그가 실물을 보여준 것은 책을 해체하여 분리한 낱장 1장뿐이었다고 한다. 다만 방송국에서 촬영했던 동영상 자료로 책의 일부인 13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화면으로 보기에 책의 상태가 매우 불완전하다고 하였다. 소장자는 이 책이 총 33장 가운데 4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제3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그중 13장에 불과하고, 책의 중요한 앞부분인 ‘어제서문’과 ‘예의’ 4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책이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책인지를 확인하려면 두 책의 정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소장자의 진술만으로 책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 예의(例義): 세종이 훈민정음의 음가와 사용 방법을 설명한 부분.

\*\* 해례(解例):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를 풀이한 부분.

#### 제시문 (다)

『승정원일기』에 사도 세자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이유는 『조선왕조실록』 1776년(영조 52년) 2월 4일 기사(記事)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가서 명령하기를,

“이번에 내가 명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하고 나이 어린 세손(世孫)\*을 위한 것이나, 다소 부족한 바가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실록』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 없겠지만, 『승정원일기』로 말하자면 미천한 자들도 다 보는 것이니 사람들의 눈과 귀를 더럽힐 수 있을 것이다. 저승에서 사도(思悼)\*\*가 자신과 관계된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승정원일기』를 통해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눈물을 흘릴 것이니, 이 어찌 훌륭한 유산을 후세에 여유롭게 물려주는 뜻에 부합하겠는가? 『실록』에 사도의 기록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승정원일기』에 그것이 없으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승정원일기』 중 사도의 죽음 관련 기록을 찾아서, 승지(承旨) 한 명이 주서(注書) 한 명과 함께 『실록』 편찬 때 하는 것처럼 창의문(彰義門) 밖 차일암(遮日巖)의 시냇가에 가져가 세초(洗草)\*\*\*해버리도록 하라. 사도를 죽인 것은 그에게도 차마 못할 일이었으니, 이번 명령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

\* 세손(世孫): 영조 말년 당시 영조의 손자로 왕위계승권자였던 정조(正祖).

\*\* 사도(思悼): 정조의 부친으로, 아버지인 영조의 명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 세자.

\*\*\* 세초(洗草): 『조선왕조실록』 편찬 후 그 과정에서 생겼던 불필요해진 각종 문서를 물에 씻어 글씨를 지우고 그 종이를 재활용하는 행위.

### 제시문 (라)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손상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 시스템이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먼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데이터는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됩니다. 또한 센터 자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물리적 공간을 멀리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에 데이터 분산 저장이 이뤄집니다. 전체 시스템 중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되며, 대다수 시스템의 데이터는 매월 말 오프라인 백업을 합니다.

이번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정보 시스템 데이터는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될 예정입니다. 우선 기존 장비를 재구동해 데이터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센터 내 다른 공간에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구한 뒤, 그렇게 해도 복구되지 않는 데이터는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 내 데이터를 추가 활용하여 복구됩니다. 이 경우, 대전 본원의 기존 및 백업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전부 손상되었더라도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재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스템은 매일 온라인 백업이 이뤄져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손상된 정보 시스템 데이터가 원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 출제 의도

〈문제1〉은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인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옛날과 오늘날에 생산된 다양한 기록의 성격을 분석해 보는 문제이다. ‘기록’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이나 『조선왕조실록』 등이 먼저 떠오른다. 한편, 전자 매체가 발달한 현대에는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닌, 전자 데이터가 오히려 더욱 중요한 기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시대와 매체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기록을 공통의 기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보다 보편적 관점에서 ‘기록’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는 국가기록원에서 펴낸 「기록학개론」과 한국기록학회에서 엮은 「기록학 용어 사전」, 그리고 오항녕의 논문 「역사학과 기록학」 중 일부를 발췌·편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문적 관점에서 서술한 매우 전문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쓰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고교 교과서인 「언어와 매체」에 정보의 신뢰성, 출처의 확실성, 전자 기록의 저장 및 손실 가능성 등의 내용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대부분의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훈민정음 언해본 ‘어제서문’의 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 이본이 기록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문자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한글 창제의 목적과 원리를 적은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후자인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먼저 간송미술관에 있는 원간본이자 유일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는 김주원의 논문 「원본 훈민정음의 출현」, 이현희의 논문 「훈민정음」, 최현배의 책 『한글갈』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경북 상주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당시 소장자를 방문하여 상주본을 직접 확인하였던 이상규의 논문 「잔업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에서 발췌하여 글을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다)는 『조선왕조실록』 중 1776년(영조 52) 2월 4일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승정원일기』 중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 세자 관련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 글자를 지워 없애버리고 종이를 재활용하라는 국왕 영조의 지시가 담긴 대목으로, 『실록』과 『승정원일기』라는 분석 대상이 되는 두 가지 기록이 등장하고 서로 대비됨에 주목하여 이를 선택하였다. 원문의 내용 중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개념은 쉽게 풀어 쓰거나 의역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인 사도 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원문에서는 생략됐지만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많이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단, 이 작업은 원문의 취지를 변경시키거나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 사도 세자의 죽음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한중록』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친숙한 만큼,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시문 (라)는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25년 10월)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정자원의 정보 시스템 데이터 관리 원칙 및 데이터 복구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자 기록의 가치와 운영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국정자원의 정보 시스템 데이터 관리 원칙 및 데이터 복구 방안은 최근에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인 만큼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된 정보의 보존 용이성 및 손실, 변형의 위험에 대해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도 다루어진 바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기록 방식, 즉, 데이터와 같은 전자 기록의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나)와 (다)는 고등학교 국어과·사회과 교육과정 내에서, (라)는 고등학교 정보 시간에 충분히 학습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문들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범위 내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통합적 사고를 이끌어 내는 문제 또한 고등학교 수준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하도록 하였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성취 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라)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나)-(라)
		[10국04-01] 국어가 변화하는 실제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제시문 (나)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 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제시문 (나)-(라)
		[12독서03-02]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나),(라)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3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 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문 (나)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제시문 (나)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4	[12언매01-03]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제시문 (나)-(라)
		[12언매02-09]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제시문 (나)-(라)
		[12언매02-10]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제시문 (나)-(라)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제시문 (나)-(라)
		[12언매03-05]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제시문 (가),(라)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한국사	
성취 기준 5	[10한사04-01] 조선 초 통치 체제의 정비와 대외 정책을 이해하고,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 과정을 파악한다. [10한사04-03] 조선 후기의 정치적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을 사회·경제적 변동과 관련하여 파악한다.
	과목명: 사회·문화
성취 기준 6	[12사문03-03]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12사문05-0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관련
	관련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제시문 (라)

## 나) 자료 출처

### 1) 교과서 내 자료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국어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2018	341	제시문 (나)	×
(고등학교)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18	384	제시문 (나)	×
(고등학교) 국어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8	328	제시문 (나)	×
(고등학교) 국어	박안수 외	비상교육	2018	277	제시문 (나)	×

### 2) 교과서 외 자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기록학 개론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2013	7-13	제시문 (가)	○
기록학용어사전	한국기록학회	역사비평사	2008	98-99	제시문 (가)	○
원본 훈민정음의 출현	김주원	대한토목학회지	2005	84-87	제시문 (나)	○
잔업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	이상규	한글	2012	5-50	제시문 (나)	○
한글갈	최현배	정음사	1942	52	제시문 (나)	○
훈민정음	이현희	새국어생활	1997	237-253	제시문 (나)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776	2월 4일	제시문 (다)	○
정부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	1-2	제시문 (라)	○

## 5. 문항 해설

〈문제1〉은 기록에 대한 세밀한 정의와 더불어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등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기술한 텍스트를 읽고, 이를 기준으로 여러 텍스트에 나타나는 기록들이 해당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논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가치 있는 기록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를 제시문 (나)~(라)에 적용하여 각기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시문 (나)~(라)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기록을 찾아내고, 그 기록에 제시문 (가)의 요소가 있는지를 판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록에 대한 기술에서 이것이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중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각각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시문들의 기록 가운데 해당 요소가 있는지 판단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판단가능한 요소만 찾아 글을 구성하는 취사선택 능력도 요구된다.

제시문 (가)는 국가기록원에서 펴낸 『기록학개론』에 수록된 기록의 정의 및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에 관하여 서술한 부분과, 한국기록학회에서 엮은 『기록학 용어 사전』 중에서 무결성에 관해 서술한 부분, 그리고 오항녕의 논문 「역사학과 기록학」에서 진본성에 관해 기술한 대목을 편집하여 재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이 글을 읽은 뒤, 위조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것임을 의미하는 ‘진본성’과, 훼손, 손실, 변조 등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무결성’, 그리고 기록이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이용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찾아, 이어지는 (나)~(라)에 나오는 기록의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원간본이자 유일본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간송본)과 대비되는, 경북 상주 소재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상주본)이 지니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간송본의 경우, 세종이 ‘어제서문’과 ‘예의(例義)’를 썼고,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解例)’를 썼으며, 외술 최현배의 언급까지 있으므로 진본성의 요소를 갖추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상주본은 전체 33장 중 29장이 남아 있다는 점, 외부에 공개한 자료가 13장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을 통해 무결성의 요소를 갖추지 못함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록이 비공개 상태이므로 이용가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조선왕조실록』 중 1775년(영조 52) 2월 4일의 기사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우선 학생들

은 이 글을 읽으면서 분석 대상으로 대비되는 기록인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초'란 원래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들을 편찬 완료 이후 파기하여 없애고 그 종이를 재활용하는 행위인데, 영조는 예외적으로 이를 『승정원일기』 중 사도 세자 관련 기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승정원일기』가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무결성이 손상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실록』은 완성 후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기에 이런 예외적인 세초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무결성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실록』은 해당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미천한 자들도 볼 수 있는 『승정원일기』는 그 요소를 갖추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2025년 10월 1일)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정보 시스템 데이터가 어떠한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해 손상된 데이터는 어떻게 복구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학생들은 우선 제시문 (가)를 토대로, 데이터가 전자 기록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손상된 데이터가 원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이라는 기술에서, 현재 데이터의 상태(이하, 상태 A)와 복구 이후의 상태(이하, 상태 B)를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 두 상태의 데이터가 갖는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태 A는 화재로 인해 무결성이 훼손되었고, 그 결과 이용가능성의 요소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상태 B의 경우, 전자 기록은 그 특성상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매일 데이터 백업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가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복구될 경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기술에서 이 데이터가 이용가능성의 요소 역시 갖추게 될 것임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6. 채점 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p>※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p> <p>■ 기본 평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li> <li>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li> <li>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li> <li>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li> </ol> <p>■ 문항 평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은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가치 있는 기록의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시문 (나)~(라)의 기록에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시문 (나)~(라)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기록을 찾아내고, 그 기록에 제시문 (가)의 요소가 있는지를 판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록에 대한 기술에서 이것이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중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를 각각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시문들의 기록 가운데 해당 요소가 있는지 판단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판단가능한 요소만 찾아 글을 구성하는 취사선택 능력도 요구된다.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해당 제시문 (나), (다), (라)의 기록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에 각각 30%씩,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li> </ol>	-

2. 제시문 (나)에서 간송본은, 세종이 ‘어제서문’과 ‘예의(例義)’를 썼고,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解例)’를 썼으며, 외솔 최현배의 언급까지 있으므로 진본성의 요소를 갖추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1책 33장의 목판본이 발견되어 남아있다는 기술에서 무결성도 갖추었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상주본은 전체 33장 중 29장이 남아 있다는 점, 외부에 공개한 자료가 13장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을 통해 무결성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록이 비공개 상태이므로 이용가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배점 30%)

		(1) 진본성	(2) 무결성	(3) 이용가능성
간송본	유무	있음	있음	
	근거	① 세종이 어제서문과 예의를 씀 ②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를 씀 ③ 최현배의 평가	1책 33장의 목판본이 발견되어 남아있음	
상주본	유무		없음	없음
	근거		① 전체 33장 중 29장이 남아있음 ② 외부에 공개한 자료가 13장에 불과함	현재 기록이 비공개 상태이므로 이용 불가

30

(※표에서 공란 표시된 부분은 제시문의 정보만으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항목임)

3. 제시문 (다)에서는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승정원일기』가 세초를 통하여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무결성이 손상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실록』은 완성 후 아무나 접근할 수 없기에 이런 예외적인 세초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무결성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실록』은 해당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미천한 자들도 볼 수 있는 『승정원일기』는 그 요소를 갖추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배점 30%)

		(1) 진본성	(2) 무결성	(3) 이용가능성
실록	유무		있음	없음
	근거		아무나 접근할 수 없어 세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아무나 접근할 수 없음
승정원일기	유무		없음	있음
	근거		사도 세자 관련 기록이 세초되어 삭제됨	미천한 자들도 볼 수 있음

30

4. 제시문 (라)에서는 우선 데이터가 전자 기록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의 상태(이하, 상태 A)와 복구 이후의 상태(이하, 상태 B)를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상태 A는 화재로 인해 무결성이 훼손되었고 그 결과 이용가능성의 요소 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상태 B를 말하자면, 제시문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자 기록은 그 특성상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데이터를 매일 백업했다는 점, 그리고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복구될 경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기술에서 이 데이터가 이용가능성의 요소 역시 갖추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상태 A가 현재의 상황이고 상태 B는 가정이므로 채점자가 판단하여 상태 A에 대한 서술에 더 높은 배점을 줄 수 있다.(배점 30%)

		(1) 진본성	(2) 무결성	(3) 이용가능성
손상된 현재 상태 (상태 A)	유 무		없음	없음
	근 거		화재로 데이터가 손상됨	화재로 데이터가 손상됨
복구되 었을 경우 상태 (상태 B)	유 무		있음	있음
	근 거		① 전자 기록은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됨 ② 매일 백업이 이루어졌음 ③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됨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됨

30

5.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는 제시문 (나)~(라)에서 각각 4개씩 확인되는데, 채점자가 답안 작성 내용의 완성도를 판단하여 1개당 7~8점을 배점할 수 있다. 제시문의 정보만으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기술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6.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찾을 때 제시문 (나)~(라)의 분석이 어느 한 글에 치우치지 않고 분량상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근거 없이 세 가지 요소의 유무만 기술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배점 10%)

10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제시문 (가)에서 다룬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인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나), (다), (라)에 나오는 기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나)의 간송본은 세종이 ‘어제서문’과 ‘예의’를 썼고,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를 썼다는 점, 최현배가 진본임을 인정했다는 점 등으로 진본성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책 33장의 목판본으로 발견되어 전해진다는 내용에서 무결성 역시 확인된다. 상주본의 경우 소실된 부분이 있으므로 무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현재 비공개 상태이므로 이용가능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제시문 (다)는 『실록』과 『승정원일기』라는 두 기록이 등장한다. 『승정원일기』는 사도 세자의 죽음 관련 불미스러운 내용 부분이 세초을 통해 삭제되었으므로 무결성을 갖추지 못한다. 반면 『실록』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의 삭제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무결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실록』은 그 요소를 갖추지 못한 반면, 미천한 자들도 다 보는 『승정원일기』는 해당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라)의 화재로 손상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데이터의 경우, 화재 결과 손상된 현재의 데이터는 기록의 무결성이 훼손되었고 그 결과 이용가능성도 갖추지 못한다. 그러나 전자 기록은 그 특성상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데이터를 매일 백업했다는 점, 그리고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복구될 경우 무결성은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기술로 미루어 이용가능성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 4

## 인문계열 논술고사 (서울, 오후) (국어/도덕/사회)

[홍익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국어, 독서, 언어와 매체 도덕과: 생활과 윤리 사회과: 정치와 법,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언론,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대의 민주제, 허위 정보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자료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는 각각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마)와 (바)를 연관 지어, 제시문 (사)와 (아)의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시오. 단, (아)의 경우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갖는 한계 또한 설명하시오.(800±100자)

제시문 (마)

언론은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 또는 이 활동을 행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미디어 주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 및 각종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시민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언론은 국가 권력이나 기업, 각종 정치 참여자에 대한 비판적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밖에 시민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 활동에 대해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여론 형성이 어려워지고,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이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언론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도 따른다. 언론은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정보의 생산과 확산이 빨라지면서 사회적·국가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 제시문 (바)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에 따라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국가의 중요한 의 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 참정권이라 불리는 이런 기본권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시민들은 투표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보통선거를 통해 온건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한 현대의 민주 주의 국가는 '대의 민주제'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민주 정치 과정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다수 유권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 기에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하는 정당이나 인물, 정책에 대해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한 다.

또한 민주 시민은 기본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행복추구권은 이 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하에서 민주 시민은 국가에 시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인권의 보호,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증진, 깨끗한 환경, 공공재 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공 등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 제시문 (사)

최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ESG\*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기 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의미하는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환경 및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상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에 가치를 둔다. 즉, 기업의 단기적 이익 증가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 기업의 양적 질적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ESG 를 실천하는 기업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보장하여 근로자 삶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위의 사회적 환경 개선과 자연적 환경의 보존에 힘써으로써 공동체 구성 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지역 신문사의 언론 활동이 기업 ESG 활동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미국에서 총 33개의 지역 신문사가 문을 닫았는데 지역 소식을 다 루던 이들 신문사의 폐업이 기업 ESG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지역 신문사 폐 업이 있었던 지역의 공장들(A그룹), 지역 신문사 폐업이 없었던 지역의 공장들(B그룹), 이 두 그룹의 공장들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과 ESG 관련 규정 위반 사례 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폐업 후 A 그룹이 B그룹에 비해 탄소배출량은 약 18.3%, ESG 관련, 즉, 산업현장안전,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 의 규정 위반 사례 건수는 약 15.2% 높게 나타났다.

\* ESG: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

#### 제시문 (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의 방송사 폭스 뉴스(Fox News)는 투표 기계 및 선거 소프트웨어 회사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Dominian Voting Systems)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조작을 통해 민주당 후보의 득표 수를 늘렸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2021년 3월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폭스 뉴스를 상대로 한화 약 1조 8천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에 폭스 뉴스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송했다는 증거가 드러났고, 결국 폭스 뉴스는 2023년 3월,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한화 약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미국 언론사 대상 명예훼손 소송 중 규모가 매우 큰 사례로 기록된다.

### 3. 출제 의도

〈문제2〉는 고교 교과 과정에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민주주의’와 ‘언론’을 최근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들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문제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 언론의 자유 개념이 설명된 지문과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담긴 지문, 이 두 개의 텍스트를 읽고, 언론과 민주주의 시스템 간의 관계와 민주주의 제도 내 ‘언론의 자유’의 의미를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두 개의 사례에서 학생들은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사회적 폐단이 일어나는지를 민주주의 제도 또는 민주주의 국가 내 권리와 연결하여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자유’ 원리가 훼손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민주주의 제도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통합사회,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설명의 일부를 발췌·편집한 것이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기능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관계를 이어주는 주요 개념인 만큼, 언론과 민주주의 간의 밀접한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되었다.

제시문 (바)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권리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 제시문 역시 통합사회,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내용을 발췌·편집한 것이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선거’ 제도와 ‘유권자’를 중심으로 설명되었는데, 이 설명 속에서 학생들은 선거 과정 속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언론 역할이 중요함을 유추해 내는 것이 요구된다.

제시문 (사)는 언론사 활동과 기업 ESG 활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 근거한 사례이다. 본 사례는,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을 기업의 ESG 활동과 연관 지어 파악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제시문 (사)에는 ESG 활동이 민주주의 국가 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권리 및 행복추구권’ 보장과 관계있음을 유추하도록 돕는 내용의 문단이 사례에 앞서 배치되었다.

제시문 (아)는 허위 정보 유포, 소위 가짜 뉴스 현상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자 선택된 사례이다. 본 사례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언론이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췌 및 재구성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사례 속에서 언론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여론 형성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참정권’의 침해로 인해 ‘대의 민주제’ 시스템이 흔들려 결국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을 분석하도록 요구된다. 더 나아가 이 문제점에 대해 정보에 대한 ‘규제’라는 방안을 찾아내고 그 한계점을 ‘언론의 자유’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그리하여 본 제시문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디어의 환경 변화가 언론의 자유 가치 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음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제시문 (마)와 (바)는 모두 고등학교 윤리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내용에서 발췌하였으며, (사)와 (아)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개념, 표현 방식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 가능한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문제는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읽는 것과 더불어 그를 통해 파악한 핵심을 (사)와 (아)에 적용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을 요구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 또한 현행 고등학교 국어 교육 과정에서 지향하는 읽기 및 쓰기 능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성취 기준 1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관련  제시문 (마)-(아)
	과목명: 독서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관련  제시문 (마)-(아)
		[12독서03-02]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사),(아)
	과목명: 언어와 매체		
	성취 기준 3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관련  제시문 (사),(아)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 기준 4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 시민의 자제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바)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 윤리와 매체 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마),(아)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성취 기준 5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관련  제시문 (마)
[12정법03-02]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시문 (바)	
[12정법01-03]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		제시문 (바)	

	한외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6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제시문 (사)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7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제시문 (사)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8	[12사문03-03]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12사문05-0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아)

## 나) 자료 출처

### 1) 교과서 내 자료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법석 외 5인	지학사	2018	105-106	제시문 (마)	○
(고등학교) 정치와 법	이경호 외 5인	미래N	2018	104-105	제시문 (마)	○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법석 외 5인	지학사	2018	31-36	제시문 (마) 제시문 (바)	○
(고등학교) 정치와 법	이경호 외 5인	미래N	2018	35-45	제시문 (마) 제시문 (바)	○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7	109-110	제시문 (마) 제시문 (바)	○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7	31	제시문 (바)	○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7	48	제시문 (바)	○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7	113-117	제시문 (바)	○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법석 외 5인	지학사	2018	83-95	제시문 (바)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9인	비상교육	2017	107-110	제시문 (바)	○
(고등학교) 경제	김종호 외 4인	씨마스	2018	41-42	제시문 (사)	○

(고등학교) 경제	허수미 외 6인	지학사	2018	86	제시문 (사)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5인	지학사	2019	224-231	제시문 (아)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7인	지학사	2017	128-131	제시문 (아)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9인	비상교육	2017	133-135	제시문 (아)	○

## 2) 교과서 외 자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대안	지성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59-60	제시문 (마)	○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오태섭 외 3인	나남신서	2025	45-50, 287-307	제시문 (마) 제시문 (아)	○
현대사회와 미디어	한균태 외 13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512-518	제시문 (마) 제시문 (아)	○
민주주의와 미디어의 권력화 - 이론적 성찰	조항제	언론과 사회	2001	6-39	제시문 (마) 제시문 (바)	○
When the local newspaper leaves town: The effects of local newspaper closure on corporate misconduct	Jonas Heese 외 2인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22	445-446	제시문 (사)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 ESG 경영	KDI	KDI/기획재정부	2021	1-5	제시문 (사)	○
Fox News sued by Dominion in \$1.6 billion defamation case that could set new guardrails for broadcasters	Elahe Izadi 외 1인	The Washington Post	2021	-	제시문 (아)	○
Fox to pay Dominion Voting Systems \$787.5 million to settle election defamation lawsuit	Dan Mangan 외 2인	CNBC	2023	-	제시문 (아)	○

## 5. 문항 해설

〈문제 2〉는 제시문 (마)에 설명된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 제시문 (바)에 설명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제’, 이 둘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가며 제시문 (사)의 기업 ESG 활동 사례, 제시문 (아)의 허위 정보(또는 가짜뉴스) 유포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논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마)에서 언론의 기능에 ①정확한 정보 전달 기능, ②비판적 견제 및 감시 기능, ③여론 형성 기능이 있음을 파악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바)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는 유권자인 시민이 선거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 민주제’의 실천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있음 또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제시문 (마)의 언론의 비판적 견제 및 감시 기능과 제시문 (바)의 인간 존엄과 가치 권리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연관 지어, 제시문 (사) 사례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뒤이어, (마)가 제시하는 언론의 정확한 정보의 전달 기능 및 여론 형성 기능과 (바)의 참정권 및 ‘대의 민주제’를 연관 지어 제시문 (아)의 허위 뉴스 사례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정보사회와 윤리’와 『정치와 법』 교과서의 ‘민주주의와 헌법’ 단원 속 내용을 발췌·재구성한 지문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세 가지 ‘언론의 기능’, 즉, 정확한 정보 전달 기능, 비판적 견제 및 감시 기능, 여론 형성 기능을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실천에 있어 ‘언론의 자유’가 필요함을 설명한 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언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 상황을 설명한다. 동시에 이러한 규제를 둘러싸고 반론 또한 제기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의 ‘민주주의와 헌법’과 『통합사회』 교과서의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의 내용을 발췌·재구성한 지문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이 ‘선거’를 통해 행사되는데 이가 올바르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정당, 인물, 정책, 사회적 사안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서술한다. 두 번째 문단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추구 및 행복의 추구 권리를 설명하고, 이러한 기본권이 민주 시민에게 시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인권의 보호,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증진, 깨끗한 환경 등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를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사)는 언론의 기능이 기업의 ESG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사례이다. 이 사례는 2022년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발췌·편집한 것이다. 단, 논문의 연구 결과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각색하였다. 첫 번째 문단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환경 개선 및 자연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미국 지역 신문사의 폐업 이후 공장들의 탄소 배출량 및 ESG 규정 위반 사례 건수가 증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이 두 문단을 읽은 후, 먼저 기업의 ESG 활동이 사회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 즉 ESG 활동이 민주주의 국가 기본권인 인간 존엄과 가치 추구권 및 행복추구권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내야 한다. 그리하여 공장의 탄소 배출량 증가가 민주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면서 행복하면서도 질이 높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함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ESG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이 근로자가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학생들은 사례 속에서 지역 신문사의 폐업으로 인해 언론이 ‘정보의 생산과 전달’ 및 ‘비판적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시문 (마)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것이 제시문 (바)에 제시된 민주 시민의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권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연결시켜, 언론의 부재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문제점을 도출해야 한다.

제시문 (아)의 사례는 The Washington Post(2021년)와 CNBC(2023년)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미국의 방송사 폭스 뉴스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했고, 이후 폭스 뉴스가 허위정보 유포 혐의와 관련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명예훼손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우선 이 사례가 허위 보도 또는 가짜 뉴스 현상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정확하거나 진실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즉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시민인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인물, 정책,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사회적 사안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하여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참정권이 침해됨을, 결국 대의 민주제 시스템이 훼손됨을 단계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 학생들은 이 허위 뉴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갖는 한계까지도 설명하도록 요구받는다. 여기서 학생들은 제시문 (바)의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규제'라는 해결 방안을 찾아낸 후에, 이 '언론 또는 정보의 규제'라는 해결책이 갖는 한계를 '언론의 자유'와 연결시켜 설명하여야 한다. 즉, 언론 및 정보의 순환에 규제를 가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이 제한되면서 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언론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되고, 그렇기에 결국 여기서도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문제 2	<p>■ 기본 평가 기준</p> <p>※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li> <li>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li> <li>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li> <li>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li> <li>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li> </ol> <p>■ 문항 평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들이 (마)와 (바)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제를 연관 지어, 제시문 (사)의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는 부분에 35%, 제시문 (아)의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는 부분에 55%,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li> <li>2.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한다.</li> </o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평가 기준 (배점)</th> <th>총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제시문 (사) 분석</td> <td rowspan="2">분석 기준 파악</td> <td>- 언론의 정보 제공 기능 (2)</td> <td rowspan="3">10</td> </tr> <tr> <td>- 언론의 비판 및 감시 기능 (3)</td> </tr> <tr> <td>-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 (5)</td> </tr> <tr> <td rowspan="3">연결 과정 설명</td> <td>- 언론 정보 기능 및 비판·감시 기능 상실함 (5)</td> <td rowspan="3">25</td> </tr> <tr> <td>- 기업의 ESG 규정 위반 사례 증가와 탄소 배출량 증가함 (5)</td> </tr> <tr> <td>- 공동체 삶의 질 저하, 사회 구성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받지 못함 (5)</td> </tr> </tbody> </table>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총배점	제시문 (사) 분석	분석 기준 파악	- 언론의 정보 제공 기능 (2)	10	- 언론의 비판 및 감시 기능 (3)	-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 (5)	연결 과정 설명	- 언론 정보 기능 및 비판·감시 기능 상실함 (5)	25	- 기업의 ESG 규정 위반 사례 증가와 탄소 배출량 증가함 (5)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총배점												
제시문 (사) 분석	분석 기준 파악	- 언론의 정보 제공 기능 (2)	10												
		- 언론의 비판 및 감시 기능 (3)													
	-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 (5)														
연결 과정 설명	- 언론 정보 기능 및 비판·감시 기능 상실함 (5)	25													
	- 기업의 ESG 규정 위반 사례 증가와 탄소 배출량 증가함 (5)														
	- 공동체 삶의 질 저하, 사회 구성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받지 못함 (5)														

제시문 (아) 분석		-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5)	
		- 민주주의 가치 훼손 (5) ※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없더라도 설명 속에 그 의미를 잘 살린 경우 동일한 점수 부여.	
	분석 기준 과약	- 언론의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 제공 기능 (7)	15
		-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 (3)	
		- 참정권 및 대의 민주제 (5)	
	연결 과정 설명	- 올바르게 못한 정보 제공 (4)	20
		- 유권자인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함 (4)	
		- 사회적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하지 못함 (4)	
		-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 (4)	
		- '참정권' 침해와 '대의 민주제' 시스템 훼손 (4)	
해결책 제시	-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언급 (5) ※ 단, '허위 정보' 대신 '가짜 정보' 또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써도 감점 없음.	5	
해결책의 한계 설명	- '언론의 자유' 개념으로 민주주의 훼손 과정 설명 (15) ※ '허위 정보 제재 → 정보 제공과 확산에 대한 규제 →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의 교환 제한 → '언론의 자유' 침해 →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점수는 차등 부여 가능.	15	
글 전체	논리적 완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5)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5)	10

##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제를 연관지어 제시문 (사)와 (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사)는 지역 신문사의 폐업이 기업의 ESG 활동에 영향을 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에서는 언론이 정보 생산 기능과 사회 감시 및 비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업의 ESG 규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 또한 늘어나 결국 지역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즉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민주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되어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됨이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제시문 (아)에서는 폭스 뉴스라는 방송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언론이 정확하면서도 진실된 정보의 전달이라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유권자인 시민이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게 되어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고, 그리하여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되고, 시민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대의 민주제 시스템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이를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일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허위 정보에 대해 국가가 규제를 가하게 될 경우, 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결국 사회 내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가치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다.